

한센병 조기진단 · 치료를 위한 적극적 검사 협조 요청

-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한센병 신환자는 총 38명으로 연평균 3.8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 특히, 2019년부터는 외국인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, 2025년 3명의 신환자가 해외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.

<지난 10년간 한센병 신환자 발생 현황>

(단위:명)

| 구분 | 전체(비중) | '16 | '17 | '18 | '19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 '25 |
|-----|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총계 | 35(100%) | 4 | 3 | 6 | 4 | 3 | 5 | 2 | 3 | 5 | 3 |
| 내국인 | 14(40.0%) | 2 | 2 | 6 | 0 | 1 | 2 | 0 | 1 | 0 | 1* |
| 외국인 | 21(60.0%) | 2 | 1 | 0 | 4 | 2 | 3 | 2 | 2 | 5 | 2 |

* 만 75세 남성, 원양어선 조종사로 남태평양 장기 거주(약 25년) 후 '24.11월 귀국

- 한센병의 경우 나균에 의해 발병되는 만감염병으로 피부와 말초신경에 병변을 일으켜 진단이 늦어질 경우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조기진단이 중요합니다.
- 한센병에 대한 의료현장에서 관심도가 낮아져 최근 5년(2021~2025) 한센병 주요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했으나, 진단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66.7%(12/18명)였습니다.
- 한센병의 주요증상으로는 감각이 저하된 피부병변, 결절, 구진, 반점, 발진 등이 동반되고, 말초신경 비후 또는 지각신경마비, 통증 등이 나타나므로, 이러한 피부 증상 및 신경 손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경우 의료진의 세심한 관찰과 진료가 필요합니다.

<한센병 초기 주요증상>

| | | | | |
|---|---|---|--|---|
|  |  |  |  |  |
| <팔> | <인중> | <눈썹> | <다리> | <발> |
|  |  |  |  |  |
| <손> | <다리> | <얼굴> | <배> | <팔> |

- 특히, 한센병 다발성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센병의 적극적 검사를 요청하며, 내원 환자가 “한센병”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기관인 “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(☎ 031-452-7091~4, 경기도 의왕시 원골로 59)으로 검사를 의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.

*** WHO 발표, 한센병 다발성(Global priority) 23개국**

인도, 브라질, 인도네시아, 콩고, 모잠비크, 방글라데시, 에디오피아, 나이지리아, 네팔, 소말리아, 탄자니아, 마다가스카, 스리랑카, 필리핀, 앙골라, 남수단, 미얀마, 코디부아르, 수단, 이집트, 코모로, 키리바시, 마이크로네시아

* 자료원: Global leprosy update, 2024(WHO)